

발기부전

1. 흡연과 발기부전 - 니코틴, '남성' 최대의 적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쉬운 담배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관여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마약처럼 각성 상태를 자극한다. 그러나 그 위해성은 마약인 마리화나보다 훨씬 크다.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보다 위험한 물질은 없다.

20세기 이전에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1930년 이후에는 급격히 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연령에서라도 담배를 끊으면 그 위험성은 상당히 감소한다. 하지만 니코틴의 의존성은 그 어떤 마약보다도 심해 아편보다도 끊기 힘든 것이 담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흡연자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대개는 3일을 못 넘긴다. 실제로 담배를 1년 이상 끊을 수 있는 사람은 7% 미만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담배를 피울 때 끝 부분의 온도는 섭씨 1천도를 넘는다. 이때 타르뿐 아니라 니코틴과 이산화탄소 등 많은 독성 물질이 폐 깊숙이 흡수된다. 흡입된 니코틴은 음경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경의 발기를 유지시키는 피가 쉽게 빠져나가게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음경 동맥의 경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관의 직경이 커야 혈류 유입량이 증가하고 수도관이 새지 않아야 수돗물을 받아먹는데, 수도관이 좁고 녹슬어서 새는 식이니 음경의 발기가 안 되는 것이다.

음경의 동맥 경화 정도는 담배를 피우는 양에 비례한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의 수와 담배를 피운 햇수를 곱하여 그 수가 20이 되면(예를 들어 하루 한 갑씩 20년을 피우거나 하루 두 갑씩 10년을 피우는 경우) 음경 동맥의 경화 정도는 72% 정도 나빠진다. 그 후 하루에 1갑씩 피우면 매년 3%씩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다.

니코틴 흡입이 만성화되면 이제는 발기를 일으키는 해면체 조직이 직접 파괴된다. 술, 담배, 고혈압의 영향 중에서도 음경 해면체의 세포 숫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니코틴이다.

흡연을 오래 한 사람은 음경 해면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

나이, 당뇨, 고혈압보다도 담배가 음경 동맥의 낮은 혈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력을 남성의 상징으로

여긴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담배를 끊지 못하지만 더 이상 담배를 피우면 발기력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담배를 끊는다. 이것이 남성의 심리다.

2. 심인성 발기부전 - 불안하면 잘 안돼요

30대 후반의 자영업을 하는 H씨. 그는 다소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다. 외도를 할 경우 전혀 발기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밤새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발기가 조금 되었다가도 금방 죽는다는 것이었다.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냐고 웃으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파트너가 바뀌었을 때 발기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형적인 심인성 발기부전 증상이다. 많은 남성들은 새로운 여성을 사귄 경우 한두 달이 지나서 익숙해져야 충분한 발기를 이룰 수가 있다. 이를 두고 흔히 낮가림이라고 한다. 발기부전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적지 않은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는다.

3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결혼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4월 결혼을 하고부터는 발기가 거의 안 된다며 지방에서 이틀간 휴가를 내서 찾아왔다.

신혼여행 때 억지로 한번 발기가 되고는 그 다음부터 거의 삽입이 힘들다고 하였다. 정작 부인은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는데 발기는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분 발기도 안 되니..... 부인은 씩씩거리고 돌아누워 버리더라고 했다.

대학 1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 사창가를 갔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남자 구실을 못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고 한다. 그 뒤로 여자 친구를 만나서 몇달 정도 사귀고 익숙해지면 발기가 되었지만 처음 몇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발기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5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발기부전이 대부분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담배 등에 의한 동맥성 발기부전이라면 40대 이하의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발기부전은 대개 심인성이다.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발기는 음경 내부에 혈액이 들어차 고압력 상태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남성이 불안에 빠지게 되면 신체의 위험신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방출된다.

이 호르몬들은 눈깜짝할 사이에 음경 곳곳에 이르러 이내 혈액의 팽창 과정을 반전시킨다. 음경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 유입량이 줄고 정맥 출구가 열려 가득 차 있던 혈액이 급속히 빠져나간다. 결국 음경이 처지게 되는 것이다.

H씨는 역시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되었다. 심하지 않은 발기부전은 평소에 부인과 관계할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익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성호르몬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방광이 차서 발기력이 좋은 새벽에 성관계를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 특히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라도 있었다면 악순환이 쉽게 이어진다.

이러한 발기부전은 적절한 성 치료와 발기 유발제 치료를 같이 한다. 성 치료 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관능 초점 훈련이다. 이것은 성기 이외의 다른 곳을 우선 자극해서 성행위가 발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련이다.

심인성 발기부전에 발기 유발제만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지 않다. 동맥성 발기부전이라면 장기적으로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키고 약을 쓰게 하여 몇달 안에 음경의 혈류를 상당히 개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심인성 발기부전에 덮어놓고 발기유발제만 쓴다면, 원인은 무시하고 단지 주사에만 의존하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는 H씨의 경우와 같이 다소 발기력이 떨어지지만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있는 남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남성이 너무나 많다. 조루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30대 후반의 환자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친구에게 들으니 30분 이상을 간다던데,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왔던 적이 있다.

그 환자도 5분 내지 10분 정도는 평균적으로 사정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조루 환자는 아니었다. 어쨌든 용량을 맞추어 주면서 2주일 후에 오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의 얘기는 싱글벙글이다.

하지만 별문제가 없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발기 유발제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글썩...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 더 예뻐지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우리 나라에서 성 클리닉이라는 곳은 가끔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곳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72]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연옥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실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02-512-1101)>